

신데렐라 출현으로 가능하는 대중예술사의 흐름과 의미

—이영미, 『신데렐라는 없었다』, (서해문집, 2022)

문선영*

국문초록

이영미의 『신데렐라는 없었다』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한국 대중예술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대중예술에서 흔하고 변하다고 여겼던 신데렐라 이야기가 드물다는 흥미로운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특정 시대, 짧은 시간 유행했다 쇠락하기를 반복했던,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았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한국 대중예술에서의 신데렐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유행과 쇠락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연애·결혼과 관계된 계층상승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인기를 누리는 현상은 그 사회의 지배질서에 대한 수용자 대중의 사회심리와 조응한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흥망성쇠를 추적하는 길은 한국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대중의 생각을 읽는 방법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1. 신데렐라 이야기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이유

긴 생머리에 헤어밴드 또는 화려하지 않은 헤어핀으로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자아냈던 20대의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TV드라마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재벌 2세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외부의 방해 또는 반대

www.kci.go.kr

*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조교수

등에 부딪혀 고난을 겪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행복해진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을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신데렐라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될 대표 캐릭터라고 불릴 만큼 존재감이 분명했다. 신데렐라 전성기에 몇몇 배우는 신데렐라 역할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나름의 신데렐라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MBC, 1994)의 착하고 순진한, 귀엽지만 불쌍해 보이는 강아지상의 신애라, <토마토>(SBS, 1999)의 평범해 보이지만 화려한 외모를 숨기고 있는, 뽀뽀하고 야무진 회사원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김희선, 귀여운 단발 펴를 하고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는, 엉뚱 발랄한 매력으로 등장했던 <과리의 연인>(SBS, 2004)의 김정은 등 다수의 톱스타가 신데렐라 계보를 이어가며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일상에서 우연히 재벌 2세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상상, 평범한 생활을 접고 재벌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꿈이 달콤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대중문화에서 신데렐라의 영향력은 꽤 오랜 시간 자리 잡았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신데렐라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중문화에서 특정 캐릭터나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의미다. 어느 순간 흥미가 없어진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가 사라진 이유를 로맨스 드라마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단정 짓기 쉽다. 연애·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요즘, 현실성 없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대중의 동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로맨스물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중심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쯤 되면 신데렐라 스토리는 긴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다, 최근 매력을 잃어버린 옛날이야기일 뿐이라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방송극 연구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TV드라마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신데렐라 이야기의 흔적들을 단순하게 넘기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세였던 멜로가 사라지고 달달한 로맨스마저 힘을 잃어가는 최근 경향으로 볼 때 다양한 장르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대중 감성의 변화라고 쉽게 단정

지었던 것이다.

이영미의 『신데렐라는 없었다』는 섬세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신데렐라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하며, 쉽게 넘어갔던 질문을 되묻게 한다. 한국 대중예술에서 연애·결혼을 주제로 한, 수많은 이야기 안에 신데렐라는 실제 큰 비중을 차지했는가? 신데렐라는 언제 등장했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나?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짜 신데렐라인가? 과연 대중예술에서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이 책은 한국 대중예술에 대해 알고 있던 막연한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론 확신을 주기도 하며,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한국 대중예술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대중예술에서 흔하고 뻔하다고 여겼던 신데렐라 이야기가 드물다는 흥미로운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즉 신데렐라 이야기는 특정 시대, 짧은 시간 유행했다 쇠락하기를 반복했던, 대중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았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한국 대중예술에서의 신데렐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유행과 쇠락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연애·결혼과 관계된 계층 상승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인기를 누리는 현상은 그 사회의 지배질서에 대해 신뢰와 자신감, 희망을 갖고 있다는 수용자 대중의 사회심리와 조응한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흥망성쇠를 추적하는 길은 한국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대중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추적하는 방법은 소설, 연극, 영화, 방송극, 대중가요 등 대중예술 전반의 다양하고 폭넓은 텍스트를 통해서이다. 이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TV드라마 뿐 아니라 한국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저자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출현, 상승과 쇠락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 193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 긴 시간을 섬세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혀 듯

이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몰랐던 이야기를 편안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100여 년 한국 대중예술사의 주요한 흐름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무게감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신데렐라라는 예술적 관습이 가지는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저자의 생각을 주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신데렐라의 조건과 대중의 사회심리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알려진 설화이다. <신데렐라>, <콩쥐팥쥐>, <백설공주> 등은 백마 탄 왕자를 만나 평범한 여성이 공주가 되거나 잃어버린 공주의 신분을 되찾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진정한 사랑이 전제된 신데렐라 이야기는 평범한 인물이 연애·결혼을 통해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되는 성공 서사에 속한다. 신데렐라 이미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TV 신데렐라 드라마는 대중적으로 흔하게 알려진 신데렐라 스토리와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외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평범하거나 조금 낮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여성이 재력을 갖춘 남성을 만나 결혼에 성공한다는 것이 신데렐라 이야기 조건에 전부일까.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한국 대중예술사에 수많은 신데렐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자는 부잣집 남자와 만나 결혼과 계층상승을 동시에 성취한 <장한몽>의 심순애를 신데렐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가면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다. 심순애는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서 계층상승을 이루었지만 가난한 연인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파적 인물이다.¹⁾ 저자는 심순애와 신데렐라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신데렐라 캐릭

터가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신데렐라는 단지 돈, 권력을 가진 자와 결혼해 성공하는 가난한 여자라는 조건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의 행복한 결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윤리적 문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결혼이어야 한다. 이 책에 따르면,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이 행복한 것으로 그려지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즐기는 사회는 많은 수용자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중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가 부도덕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계층 차이로 인한 불평등한 세상의 지배질서를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근대 이후 오랜 기간 대중이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신파적 이야기를 더 많이 수용했던 이유를 신데렐라의 조건 성립이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세상의 지배질서를 신뢰하지 않지만 거부하지도 못하는 대중의 사회심리는 <장한몽>, <쌍옥루>, <불여귀> 등의 신파적 인물형을 유행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쌍옥루>의 경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홍도의 예를 통해 저자는 "사랑과 결혼, 가족관계에서조차 약육강식의 질서가 관철되는 세상에 대한 당대 대중의 불안감과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연애가 가능해지고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체제에서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중의 불안은 행복한 신데렐라가 아닌, 신파적 인물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다.

2장은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신파적 인물이 오랜 시간을 자리 잡고 있

1) 이 부분은 저자의 또 다른 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파를 미적 특질로 보고 신파성이라 부를 만한 미감과 그것이 담지한 세계 전유 방식에 주목한다. 저자는 신파성을 "억압적 세계 속에서 기초적 욕구·욕망이 억눌린 무력한 자아가 그러한 세계의 억압적 질서에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자학과 자기 연민의 태도"로 본다.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37-38쪽 참조)

있던 이유와 대중의 심파적 미감의 흐름을 밝히는 과정이 한국 대중예술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유행을 계층상승의 성공 서사가 대중에게 호응받는 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에 대해 대중이 희망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데렐라 이야기를 대중이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뢰가 필요하다. 결혼 이후, 이루어질 가족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신뢰와 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이다. 세상의 지배질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중은 행복한 신데렐라에 기꺼이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자의 해석은 심파적 인물이 중심을 이루던 시기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중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호응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근대 질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데렐라 이야기의 인기가 상승하는 시대를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사회라고 생각해야 할까. 이에 대한 오해는 저자의 덧붙인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저자는 이 점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태도나 심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바람직한 사회의 기반이 성립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그 세계의 지배질서에 대해 얼마나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는 의미이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쉽게 등장할 수 없는 배경을 살펴보는 일은 사회체제를 수용하는 대중의 감각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2장은 저자의 저서 『한국대중예술사, 심파성으로 읽다』(푸른역사, 2016)에서 밝힌 심파성과의 연결을 통해 한국 대중예술의 맥락을 읽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지만, 신데렐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예술사의 중심축을 이룬 심파성과의 연관성, 영향 관계를 두루 살피고 있다.

3. 신데렐라 이야기의 흥행 곡선과 대중의 수용방식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신데렐라의 유행은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 1930년대 신파적 인물이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던 신파의 시대를 지나면 드디어 신데렐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 1990년대 TV드라마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신데렐라의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만 맴돌 뿐, 1930년대와 1990년대를 이어주는 기간의 신데렐라를 떠올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저자가 제시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립해야 하는 조건과 대중이 사회 질서 체제를 수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도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하는 첫 번째 지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1990년대 이전,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할 수 있었을까.

이 책에 따르면 신파적 인물이 중심이었던 신파의 유행에서 벗어난 1950년대 자유주의 시대에도 신데렐라의 유행은 오지 않았다. 미국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1950년대 대중예술에는 일제 강점기와 다른 성격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가 등장했다. 강렬한 사랑의 감정과 성에 대한 욕망이 넘쳐나는 분위기는 영화 <자유부인>(1956)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이다. 연애·결혼에 대한 자유와 열망이 넘쳐났다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등장할 법도 하다. 저자에 따르면 1950년대는 사랑과 돈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양상이 드러날 뿐, 이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거리가 있다.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패트론(Patron) 현상이다. 패트론은 미모와 젊음을 가진 여자에게 돈이나 권력으로 후원하는 남자가 증가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말해준다. 이 시대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생존과 사회적 정착을 위해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 후원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후원자 남성에게 의해 사회적 정착을 이룬 여성은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행복한 신데렐라가 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한 것

은 두 시기인데, 1960년대 짧은 기간과 1990년대~2010년 초반까지의 기간이다. 이 책의 3장은 196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남자 신데렐라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부분은 여성 신데렐라만 상상하던 틀을 벗어나게 하며 한국 대중예술에서의 신데렐라 이야기의 흐름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1960년대 초반 짧은 시기, 넘쳐났던 신데렐라맨은 어떤 배경으로 등장한 것일까. 이 책은 1960년대 분위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 초반 대중예술에는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이 덧붙여지지 않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 계승 상승의 이야기가 유행한다. 경제적 부와 권력 쟁취에 진정한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희망은 저자가 밝혔듯이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경제 개발을 내세운 정권의 출현,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배경이 전제가 된다. 1960년대 성공의 가능성을 꿈꿨던 것은 오로지 남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1960년대 초반 짧은 시기, 돈도 능력도 없지만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신데렐라맨이 넘쳐났다.

저자는 그들의 순진하고 낙관적 기대는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신분 상승에 성공한 청춘영화 <맨발의 청춘>(1964)의 신성일이 시골에 남은 부모 형제를 나 몰라라 한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진 신파적 주인공으로 재현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멜로드라마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며 눈물을 자아내는 신파성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저자도 제시했듯이 1967~68년 즈음은 영화와 방송드라마에서 멜로물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다. 라디오 연속극 전성기였던 이 시기 방송사마다 울음이 가득한 신파성 강한 멜로드라마가 대세였고 라디오에서 유행하던 드라마는 대부분 영화로 전환되었다. 이 책 2장에서 언급한 전제에 따른다면 신파성이 부활한 1960년대 후반은 신데렐라가 등장할 틈이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

국 대중예술에서 신데렐라의 인기는 아주 짧게 이루어진다. 그것도 남성 인물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말이다. 신파성의 부활과 함께 다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없었던, 사라진 신데렐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1970년대 이후 신파성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하지만 1970~80년대 중반까지 신데렐라 이야기는 왜 다시 상승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중의 수용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노동문제, 도시 주거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를 빠르게 체화했고 1960년대에 비해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현실적 감각들도 갖게 된다. 이는 연애, 결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대중의 인식변화가 일어난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결혼상당소라는 상업적 시스템 안에서 결혼 시장 논리를 빠르게 체화하는 대중의 수용 감각이다. 이 시기 대중은 1960년대 신데렐라맨처럼 계층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유행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시기 결혼 시장 시스템의 반대편에 있는 인물들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책에서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유행한 성매매 여성 인물형과 결혼 시장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엘리트 여성 인물형의 출현에 주목하고 있다. 중상류층 출신이면서 돈, 권력이 보장되는 혼처를 과감히 포기한 엘리트 여성, 낮은 사회적 지위로 신분 상승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성매매 여성은 사랑과 계층상승을 동시에 성취하고 행복해지는 신데렐라 인물형과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이다.

저자는 신데렐라의 본격적인 유행에 진입하기 직전, 신데렐라의 이야기에 점차 가까워지는 흥미로운 조짐을 제시한다. 이는 1980년대로 들어서는 시기, 가난한 여주인공과 부잣집 청년의 사랑을 그려낸 드라마 작가 김수현의 소설<상처>, 문순태의 소설 <걸어서 하늘까지> 등의 몇몇 작품을 통해서이다. 저자는 이들 작품은 부잣집 남자와 가난한 여성의 사랑과 성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시기상

조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남자 주인공이 부도덕하고 권위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에 대한 심한 환멸과 분노를 지닌 부자 청년은 신데렐라의 완벽한 왕자가 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이후 직업적 능력을 갖춘 젊은 여성 캐릭터가 한국 대중예술사에 나타나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드디어 우리나라 여성 대중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매료되는 현상이 나타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남자 후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성공과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에 대중을 매료시키며 등장한 ‘캔디’의 폭발적인 인기와 유행은 곧 신데렐라 이야기의 전성기가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만화 <캔디 캔디>의 영향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후 한국 대중예술, 특히 TV드라마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지배적이다. 씩씩하고 명량한 말괄량이 소녀 ‘캔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TV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넘쳐날 때 ‘캔디렐라’ 같은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끊임없이 반복, 변주되는 신데렐라 캐릭터의 기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유행한 신데렐라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캔디 캐릭터와 <캔디 캔디>의 이야기에 대중이 왜 매료되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 저자는 <캔디 캔디>의 캔디가 참고 인내하는 소극적인 스타일의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설화의 인물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캔디는 씩씩한 말괄량이일 뿐 아니라 자기 성취 욕구가 강한 인물이라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캔디는 의지적이고 추진력 있는 과감한 행동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인물이다. 이러한 캐릭터의 특성에 착안하여 저자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캔디의 유행을 통해 10대 여성 대중의 사회심리를 읽어낸다. 이 시기 10대 여성 대중은 보호해줄 부모가 아니라 자립심과 성취욕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한편 저

자는 캔디를 대표로 하는 이 시대 신데렐라 붐은 제한적이고 과도기적이었다고 진단한다. <캔디 캔디>의 인기가 10대 여성 수용자에 국한된 현상이었다는 점, 한국 순수 창작 순정만화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수용자가 진정성 있는 연애와 결혼을 통해 행복한 성공에 이르는 꿈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 크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당시 주요 인기 만화 작가인 황미나, 김혜린, 신일숙의 순정 문화가 정치 권력이나 역사 변혁의 욕망을 지닌 여성 주인공을 설정했다는 점을 중요한 예시로 제시한다.

이 책은 4~5장의 긴 분량을 할애하여 최초로 여자 신데렐라 이야기 유행이 전면화되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설명을 이어간다. 4장의 이야기는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대중에게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를 생산했던 신데렐라 이야기가 상승하던 시기에 대한 것이다. 그 시작을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보며 저자는 신데렐라 이야기 부상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이 시기 신데렐라의 이야기 중심은 여성 주인공이라는 점, 둘째 1990년대 시작된 신데렐라 이야기는 국내 제작 작품이며 넓은 수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 시기 TV드라마의 신데렐라는 모두 ‘캔디형 신데렐라’라는 점이다. 이 시기 신데렐라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분석한 다음, 저자는 한국 대중예술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본격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인다. 1992년은 문민정부시대가 열리며, 세계 냉전체제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개인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저자는 사회적 변화에서 여성 신데렐라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젊은 여성의 자신감과 희망이 이전에 비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1992년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저학력의 가난한 여성 주인공이 연애·결혼을 통해 성공하는 행복한 신데렐라 이야기는 현재 한국 대중예술의 신데

렐라 이미지를 만들어낼 정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데렐라 이야기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저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며 변화의 국면을 겪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외환위기로 생긴 고용 불안정의 절박함 속에서 인간관계의 윤리, 진정한 사랑 등의 가치보다 경쟁 시스템 안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대중에게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기대나 소망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2010년을 넘어서기까지 여전히 신데렐라 이야기가 지속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데렐라적 계층상승의 불가능성을 넘어서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희극성의 강화와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 대중이 공감하지 못하는 지점을 보완하며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저자의 해석은, 2010년 전후로 해서 로맨틱 코미디와 만화적 배경 설정이나 타임슬립 등을 활용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의 증가를 상상해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점이다. 1997년 이후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본격적 경쟁 시대를 살아야 했던 대중에게 진정한 사랑을 통해 연애·결혼 그리고 사회적 성공 모두를 획득하여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환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88만원 세대’, ‘삼포세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서면 신데렐라 이야기는 대중에게 멀어지며 다시 쇠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4. 신데렐라가 사라진 시대, 그 흔적이 남긴 것들

이 책은 마지막 5장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쇠락한 2010년대 이후 연애와 결혼을 소재로 한, 로맨스 드라마의 몇몇 경향을 소개하며 신데렐라 이야기가 사라진 이후 최근 변화를 정리한다. 이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

까지 한국 대중예술, 특히 TV드라마에서 심순애 형 인물이 재등장하기도 하고(<청담동 엘리스>SBS,2012), 생명과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일상에서의 사랑 이야기가 인기를 누리는 경향<쌈,마이웨이>KBS,2017, <멜로가 체질>JTBC,2019, <술꾼 도시여자들>tvN,2021)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통해서이다. 한편 부유층의 연애·결혼·가족 이야기가 극한 경쟁, 불륜, 음모, 복수 등 자극적 설정으로 이루어진 막장 드라마의 경향도 언급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2020년 초 양극화 모습이 재현되는 연애·결혼·가족 이야기는 평범한 인물과 부유층 세계의 인물이 만나는 접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한다. 즉 진정성 있는 연애와 결혼을 통한 급격한 계층상승 같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대중의 사회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미의 『신데렐라는 없었다』는 193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긴 시간 동안 한국 대중예술에서 짧은 상승과 긴 쇠락의 길을 걸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대중이 수용했던 사회와 그를 통해 발생한 대중의 감성을 읽어내고 있다. 쉽지 않은 신데렐라 추적기를 통해 저자는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리 인기 있는 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대중예술의 수용자인 대중이 근대 자본주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거나 불편해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해석한다.

사라진 신데렐라는 다시 등장할 것인가? 또 다른 변주를 통해 대중을 매료시킬 신데렐라 이야기의 상승은 가능한 것인가? 다시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책의 끝 무렵에 도달하니, 새로운 질문들이 남는다. 이 질문에 대해 성급하게 답을 찾기보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저자의 견해를 되새겨본다. “현실이 절망적이고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해서 대중이 늘 행복한 신데렐라를 꿈꾸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신데렐라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맥락과 흐름을 정교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사회적 변화와 대중의 심리를 파악해내는 일에 크고 넓게 보는 눈과 꼼꼼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